

위종양성병변에서 절개박리법(Incision & Dissection Method)을 이용한 위점막절제술의 유용성

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소화기연구소, ¹병리학교실

유창범, 김상균, 백승훈, 정인섭, 고봉민, 권계원¹, 홍수진, 진소영¹,
조주영, 이준성, 이문성, 심찬섭, 김부성

(연구목적) 내시경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위종양성병변에서 점막절제술이 많이 시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의 부속기구들의 발달로 인하여 절개박리법(incision & dissection method, EISD)을 이용하여 직경 2 cm 이상의 큰 병변의 일괄절제가 가능하게 되었다. 그러나 시술자의 숙련을 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. 연자들은 이러한 절개 및 박리법을 이용한 위점막절제술을 분석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2001년 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본 교실에서 위편평선종과 조기위암으로 진단되어 위점막절제술을 시행하였던 218명의(남 : 여=149 : 69, 평균연령: 61.09세, 선암: 123예, 이형성증: 106예) 229병소를 대상으로 하였다. 절개박리법 시술 시 다양한 종류의 절개도를 이용하였으며 일괄절제술, 완전절제술, 합병증 및 재발을 등을 분석하였다.

(결과) 1) 병소의 크기에 따른 일괄절제율과 완전절제율은 직경 11에서 15 mm 병소에서 각각 91.2% (52/57), 89.5% (51/57), 직경 16~20 mm의 병소에서 각각 96.4% (54/56), 83.9% (47/56)이었으며 직경 21~30 mm 병소에서는 87.1% (54/62), 91.9% (57/62), 31 mm 이상에서는 89% (49/55), 81.8% (45/55) 이었다. 2) 합병증은 출혈 9.2% (13/229), 천공은 2.6% (6/229)이며 이로 인한 사망이 1예가 있었고 흡인성 폐렴이 1예였다. 3) 일간 추적관찰 결과 재발 혹은 잔류병변의 발견은 3.5% (8/229) 였다.

(결론) 절개박리법을 이용한 위점막절제술은 비교적 큰 병변에서 완전절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출혈, 천공 등의 합병증에 유의하여야 하며 고도의 숙련을 요한다.